



#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

- 전년대비 14.8% 성장, 혁신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하였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하였다.

< 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규모(단위 : 조원) >

구분	'21	'22	'23	'24	'25	'24 대비 '25
	<b>잔액</b>					
지식재산 담보대출	1.93	2.19	2.32	2.15	2.09	-2.8%
지식재산보증	3.21	3.66	4.09	4.41	4.67	+5.9%
지식재산투자	0.86	1.93	3.19	4.32	5.64	+30.7%
<b>총계</b>	<b>6.0</b>	<b>7.78</b>	<b>9.6</b>	<b>10.8</b>	<b>12.4</b>	<b>+14.8%</b>
<b>신규공급</b>						
지식재산 담보대출	1.05	0.92	0.91	0.75	0.79	+5.6%
지식재산보증	0.84	0.88	0.99	0.97	0.99	+1.9%
지식재산투자	0.61	1.30	1.34	1.23	1.33	+7.6%
<b>총계</b>	<b>2.5</b>	<b>3.1</b>	<b>3.24</b>	<b>2.95</b>	<b>3.11</b>	<b>+5.2%</b>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되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하였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감소한 것은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보다 상환액 등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 보증 잔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67조원이며,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9,9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초기기업 및 혁신 중소·개척기업 등에 대한 정책보증 공급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지식재산 투자의 경우, 잔액은 전년대비 30.7% 급증한 5.64조원, 신규공급은 7.6% 증가한 1.33조원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투자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이나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투자가 증가한 것은 지식재산이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보는 투자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담보대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대출 소요기간 단축(4주 → 2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태펀드 특허계정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투자기금 확대조성,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개척기업이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지식재산금융 현황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유용신 (042-481-3542)
		담당자	사무관	서정석 (042-481-5064)

□ 지식재산 금융 개요

- (개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
  -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기술로 자금을 융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소기업 대출조건별 비중('25, 중기중앙회) : 부동산담보(33.4%), 순수신용(30.3%), 보증서담보(17.7%)

\*\* '25년 지식재산가치평가 연계 지식재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약 77%가 신용등급 비우량(BB+ 이하)

- (절차)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평가 → 지식재산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대출·투자·보증 실행

< 지식재산 금융의 유형 >

구분	내용	관련 금융기관
지식재산 담보대출	■ 은행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은행
지식재산 투자	■ 투자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 지식재산보유기업 지분투자,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 등	벤처캐피탈(VC) 등
지식재산 보증	■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서 발급 →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지식재산 금융 규모

- '25년 말 잔액\* 기준 12.4조원 달성

\* 조사 시점에 공급되어 있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 누적 담보대출·투자·보증액 - 상환·회수된 금액)

< 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 >

